

## 국내경기는 3개월 만에 악화

~ 개인소비 침체가 최대의 하락요인, 연료가격 상승 등 코스트 증가도 ~

(조사대상 2만 6,765사, 유효회답 1만 1,014사, 회답율 41.2%,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5년 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감소한 43.6으로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저조한 개인소비가 크게 하락하여 잇따른 가격인상의 악영향이 나타난 2023년 1월 이래 2년 만의 하락폭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경기는 기업의 코스트 부담 증가 등 하향 요인을 많이 떠안고 있으나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개 업계 중 8개 업계, 51개 업종 중 37개 업종에서 악화로 나타났다. 소비관련부터 소재관련까지 폭넓은 업계에서 침체하였다. 지역별로는 코스트 부담 증가 및 국내여행 부진 등으로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모두 악화되었다.
- [이달의 토픽스] 트럼프 정권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는 관세정책의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 외에 세계경제의 상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 < 2025년 1월의 동향 : 악화 >

2025년 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감소한 43.6으로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저조한 개인소비가 크게 하락하여 잇따른 가격인상의 악영향이 나타난 2023년 1월 이래 2년 만의 하락폭으로 나타났다.

1월은 소비경제 침체가 최대 악화 요인이 되었으며, 연료·원재료 가격의 상승 및 인력부족도 폭넓은 업계를 압박하였다. 가솔린 보조금 축소도 코스트 증가를 초래하였다. 연말연시의 연휴 이후 수요가 침체한 국내 여행도 악화되었다. 일본은행에 의한 정책금리 인상 등도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인바운드 수요가 계속해서 호조였으며, 자동차 부품 생산의 회복기조는 호재로 나타났다.

### < 향후의 전망 : 보합 경향으로 추이 >

향후는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개인소비 확대의 호순환 움직임이 초점이 될 것이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른 차입금리의 상승 및 연료 가격의 급등 등, 기업의 코스트 부담 증가는 하락세 요인이다. 또한 가계의 절약정신도 우려요소이다. 관세를 포함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나 중국경제 등은 리스크 요인이다. 한편 관광산업의 신장 및 설비투자 확대는 호재가 될 것이다. 향후의 경기는 하향 요인을 많이 떠안고 있으나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